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 1 >

梁 啓 超 著
沈 賈 俊 譯

〈譯者の 말 : 이 글은 經學·史學·佛敎學等 諸面에 博識한 中國의 碩學인 故 梁啓超(Liang Chi-Chao 1378~1930)氏의 「古書眞僞與其年代」(臺灣, 中華書局, 民國 52)를 譯한 것이다. 本著는 著者가 그의 晩年에 全生을 거쳐 研究한 한 斷面을 整理, 民國 16年 2月부터 6月까지 半年間 北京 燕京大學에서 이를 講義한 內容이다. 總論에 提起된 古書의 眞僞識別에 대한 諸問題는 東洋學研究는 勿論, 古書整理와 書誌學研究者들의 指針書로 될 것이며, 各論에 紹介된 經典을 비롯한 諸文獻의 解題는 東洋學部門에 있어서의 人文·社會科學書誌研究의 羅針盤으로 믿어 疑心치 않는다.〉

總 論

이 講義는 總論과 各論 두 篇으로 엮였으며 各論은 古書의 眞僞와 年代問題를 한 冊 한 冊 차례로 나누어 論했고, 總論은 모두 5章으로서 第1章은 辨僞와 年代考證의 必要性을 論했고, 第2章은 僞書의 種類 및 僞作의 來歷 그리고 附帶의 年代錯誤의 原因을 論했고, 第3章은 辨僞學의 發達에 대해서 論했고, 第4章은 辨僞와 年代考證의 方法을 論했고, 第5章에서는 僞作에 대한 別途의 評價를 論했다. 이제 總論부터 말하고자 한다.

第1章 辨僞와 年代考證의 必要性

書籍에 僞作이 있는 것은 나라마다 같은 것으로 中國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文化의 發達이 오렐수록 崇古思想도 더욱 強하여져서 年代가 湮滅하게 되면 自然 數많은 後人들은 古書를 僞造함으로써 當時의 需要에 應하게 됐다. 이것은 아마 人類의 共通性으로서 免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中國人들이 書籍을 僞造하는 재주는 特히 발달했을뿐 아니라 또한 일찍이 나타났다. 어느 部門의 學問을 莫論하고 모두 許多한 僞書가 있다. 經學·史學·佛敎學·文學 등등의 僞書를 到處에서 볼 수 있다.

許多한 僞書가 있기 때문에 研究에 從事한 사람들로 하여금 迷惑·混亂케 하고, 崇古의이고 생각이 깊은 많은 學者들은 往往 僞書에 誤導되어 研究의 基礎가 든든치 못하게 되니, 뒤의 推論과 結論은 더 말할 나위 없게 되는 것이다. 卽 歷史를 研究하려면 當然히 事實에 依據하여 그 原因 結果를 究明해야 하는 것인데 가령 根本的으로 이러한 事實이 없었다고 한다면 考究

의 努力이 어찌 헛된 것이 아니라! 設或 事實은 있더라도 眞相이 그렇지 않았다면 考究의 努力은 亦是 헛되게 될 것이다. 數千年 以來로 許多한 學問이 모두 模糊한 影響 속에 있으며 忠實한 科學의 根據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關係도 있었겠으나 僞書에 誤導된 것이 實로 가장 큰 原因이 되고 있다. 于先 辨僞 및 年代考證의 必要性을 세 方面으로 나누어 論해 보고자 한다.

1. 史 蹟

歷史研究에 있어서 가장 主要한 對象은 오로지 史蹟 方面에 있다. 書籍에 僞作이 많기 때문에 史蹟은 아래 네 가지의 不良한 現象이 생기므로 일일이 是正하기 어려운 史家들의 머리를 混鈍시키게 된다.

첫째, 進化系統의 紊亂: 馬驕의 「釋史」를 보면 그 속에 遠古의 事蹟을 言及함이 참으로 많으며 史料 또한 놀랄만큼 豊富히 收錄되어 있다. 萬一 이에 根據한 그렇게도 無窮한 資料가 모두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中國은 盤古時代에 이미 文明의 曙光이 있었을 것이며, 天皇·地皇·人皇·伏羲·神農·軒轅에 이르기까지 典章文物이 燦然하고 衣服器物도 있을대로 있어 文化의 발달은 極致에 이르렀을 것이고, 다른 古代文明에 比해서 훨씬 水準이 높았을 것이다.

釋史는 그만두고라도 가장 믿을 만한 漢書藝文志를 보면 그 속에 收錄된 神農·黃帝 씨의 著作이 얼마나 되는지를 셀 수 없으며 伊尹 太公의 著作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數를 셀 수 없다. 萬若 이러한 冊들이 모두 事實이라면 中國文明과 世界文明의 進化原則과는 바로 相反되어, 이른바 「黃金時代」는 他國에 있어서는 近世에 있었으나, 中國에 있어서는 古代에 있었다. 中國의

文明은 萬年前에는 黃金이고, 千年前에는 銀이고, 그以後에는 銅이고, 漸次 變遷하여 주석이 된다. 神農·黃帝의 許多한 著作을 믿는다면 곧 殷墟甲骨은 전혀 僞作일 것이거나 中國文明은 特別히 後世로 오면서 退化한 셈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神農·黃帝 때에 이미 文物制度가 燦然하게 갖추어졌다가 商朝에 이르러서는 저처럼 簡陋하게 低下되었을까?

釋史가 根據한 各書와 漢書藝文志에 실린 神農·黃帝의 著作은 본래 모두 없었던 것을 後人들이 僞造한 것이다. 小學과 中學의 歷史敎材에는 神農 黃帝의 史實이 많이 실려 있다. (最近의 敎材에는 이 史實을 고쳤지만) 그 때의 水準은 아주 높았고, 世界의 모든 文物은 대개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참으로 우리 中國人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古代의 그와 같던 發達이 왜 늘상 發展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과 남들은 나날이 進步하는데 우리(中國)는 나날이 退步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또 참으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實은 原來 이런 것이 아니라 書籍들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進化系統이 紊亂케 된 것이다.

暫時 古書는 論外로 하고 좀 가까운 것으로 周禮 같은 것을 말하면 이전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周公의 著作이라고 하나 그 가운데에서 言及하고 있는 地理, 民情은 모두 戰國時代와 秦·漢 間의 事物이다. 萬一周禮를 믿는다면 곧 周朝의 政敎가 미친 바는 戰國 및 秦·漢과 別差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이와 같지 않다. 民族은 徐徐히 불어나는 것으로 처음에는 조그만한 部分을 占據하고 나중에 가서 널리 擴張되는 것이다. 周禮를 만든 사람은 當時의 文化가 이와 같은 것을 보고 現實의 社會에 依해서 理想의 社會를 構成한 것이다. 그래서 一千年 後의 戰國·秦·漢을 一千年前의 周公時代와 같이 만든 것이다. 萬一周禮가 事實이라면 周朝八百年은 조금도 進步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春秋에서 戰國을 지나 秦 및 西漢에 이르기까지의 千餘年 間도 역시 조금도 進步한 것이 없게 된다. 그러나 事實은 이와 같지 않다. 書籍年代가 明確치 않으므로 歷史의 進化系統이 온통 混亂된 것이다. 歷史를 읽는 우리들이 이러한 不正確한 觀念을 가진다면 民族의 努力에 대하여 커다란 阻害가 될 것이다.

둘째, 社會背景의 混亂: 이 問題는 既述한 前條와 內容이 別差 없으며 다만 多少 같지 않은 點이 있을 뿐이다. 古書를 읽을 때 우리는 비단 사람과 史實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時代의 背景과 一般의 社會狀況이 필경 어떠했는가 합을 본다. 書籍이 가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社會背景을 잘못 볼 수가 있다. 卽 西京雜記 같은 것은 分明히 晉人 葛洪의 著作이지만, 後人들은 西漢時의 劉歆의 著作이라고 誤認하고 있다. 葛

洪과 劉歆과의 사이에는 三百餘年의 距離가 있다. 萬은 東晉 때의 일을 말했고, 劉는 西漢 때의 일을 말할 것이니 萬若 西京雜記를 가지고 東晉時의 資料로 친다면 그것은 아주 正確한 것이지만 萬若 이 書籍으로써 西漢時의 資料를 친다면 西京 곧 長安이 되니 그것은 큰 錯誤이다.

또 「雜事秘辛」이란 小品小說이 있다. 이 冊은 明末에 楊慎(用修)이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楊氏의 文章은 참으로 뛰어난지만 그 사람의 手法은 多少 깨닫지 못한 점이 있어서 僞作을 잘 했다. 그의 말에 依據하면 이것을 어떤 露天書店에서 구했다고 한다. 그 內容은 東漢 때 梁冀의 家事를 收錄한 것이다. 當時 皇帝는 王妃를 간택하고 있었는데 梁大將軍의 小姐가 마을에 들어 皇太后가 한 保母를 파견해서 楊小姐의 몸을 뒤졌다는 대목이 있다. 그 文章은 매우 아름답지만 全部 事實이 아니다. 楊氏 자신이 지은 것을 漢人의 作品으로 假託한 것이다.

만약 楊用修가 率直하게 自己의 작품이라고 承認했다면 明人의 小說에 이미 이러한 著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文學界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真相을 暴露하고자 하지 않고 억지로 漢人의 作이라고 속였으므로 後人들은 그 内幕을 알 수 없어, 이를 보배로 여기며 漢代의 風俗·儀式·服飾을 研究하는 데의 좋은 資料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錯誤이다. 나 자신도 몇 年前에 속아서 이것을 漢代의 野史라고 간주했었다. 그 가운데 纏足을 얘기한 部分은 作者가 주의할 하지 않아 남겨 놓은 破綻이다. 明代에 纏足했으므로 漢代에서도 纏足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冊이 漢人의 作品이라 믿고서 纏足은 五代부터 행해진 것이 아니라 漢代부터 기원했다고 斷定한다면 어찌 웃음거리가 아니라!

셋째, 事實是非의 倒置: 現存하고 있는 두 권의 책으로 그 가운데 僞作이 있어 옳고 그름을 混亂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 있다. 그 하나는 「涑水記聞」이요, 다른 하나는 「幸存錄」으로 모두 野史이다. 涑水記聞은 여태까지 宋나라 때 司馬光의 著라고 하여 오고 있다. 原書는 비록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未定稿일 것이다. 後人은 司馬光의 名聲이 크므로 世人을 眩惑시키기 쉽다는 점에서 原著에서 조금 빼내고 다시 다른 것을 조금 집어 넣어서 攻擊 및 謠言造作의 道具로 삼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王安石에 대한 謠言이 특히 많았고 攻擊도 특히 辛辣했다. 一般 사람들이 王安石을 辱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지만 萬一 司馬光이 王安石을 辱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이 있는 것이다. 實은 司馬光의 著書가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것은 이미 원래의 그것이 아니며 司馬光의 孫子 司馬伋이 上書한 글에서도 이

것은 그의 祖父 司馬光의 著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그 緣由는 可히 斟酌이 간다. 現存한 涑水記聞은 개인의 비밀을 攻擊한 곳이 적 많다. 司馬光은 王安石과 더불어 政見은 비록 맞지 않았을지 몰라도 最少限 司馬光의 人格은 개인의 秘密을 攻擊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保證할 수 있는 것이다. 後人들이 그의 名聲을 利用하여 個人的 비밀을 攻擊했다는 누명을 억지로 司馬光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것이 僞書로 말미암아 是非가 錯亂케 된다는 것이다.

幸存錄은 출판 모두 明末의 夏允彝의 著라고 말해지고 있다. 夏氏는 東林黨人으로서 人格이 지극히 高尚함을 볼 때 幸存錄 같은 作品을 그가 썼을 것 같지는 않다. 同著에는 魏忠賢을 辱하기도 하고 東林黨을 辱하기도 한다. 僞作者들의 手段이 아주 좋아 사람들로 하여금, 公평한 것처럼 느끼게 하여 忠賢도 물론 나쁘으나 東林 또한 반드시 옳았던 것은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편이지만 公평하게 말했다고 여기게 했다. 黃宗羲는 일찌기 幸存錄을 實은 「不幸存錄」이라 하였으며 原書는 夏允彝의 著가 아니고 夏氏가 이와 같은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은 비록 이와 같다 할지라도 幸存錄은 아직까지 存在하고 있으며 明末의 政治樣相을 究明하려면 同著를 參考치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裁賊(譯註: 他人을 賊으로 무함하려고 僞物的 贗品을 만들어 그 증거를 삼는 것)으로서 夏氏의 著가 아니었다면 또한 일찌기 亡失되었거나 아무도 이것을 問題 삼지 않을 것이지만, 이 夏允彝을 尊重하기 때문에 이 책이 保存된 것이다. 이것은 史蹟上 가장 痛恨할 만한 일이다.

네째, 事實로 말미암아 道德 및 政治에 影響을 미침: 許多한 史蹟이 本來 그 事實은 없지만 假託한 人物이 偉大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影響이 많이 미쳐 내려오고 있다. 例컨대 孔子가 少正卯를 誅戮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孔子家語」에 이를 자상히 말했고, 孔子家語 이전의 著作과 周·秦의 諸子書에도 一部分은 또한 이 事件을 말하고 있다. 孔子와 小正卯는 同時에 學生을 募集하여 講學했으며 두 곳의 距離도 서로 가까웠다. (마치 燕京大學과 淸華大學과 같은 程度로) 孔子의 學生들이 모두 少正卯의 곳으로 갔으므로 孔子는 대단히 성이 났으며 그가 執政한 後 三日만에 少正卯를 붙잡아다 죽이었다는 것이다. 後世의 儒家들은 아주 우물대면서 孔子는 手段도 있고 權道와 變法에도 通達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事例를

본 불려고 했다.

우리들이 알기에는 少正卯의 罪名은 말다툼을 잘 하고 偏僻한 行動을 하고, 潤澤한 일을 아니 하고, 추잡한 것을 많이 記憶하고의 네가지이다.¹⁾ 이것은 戰國時代末期の 殘忍하고 恩惠를 베풀 줄 모르는 法家思想에서 나온 것이 分明하다. 그들은 專制政治를 嚴하게 施行하고자 孔子를 끌어서 事實을 捏造하여 法家만 刻薄한 것이 아니라 儒家 最古의 先祖도 벌써 이와 같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實은 孔子는 春秋時代의 사람이며, 當時는 完全히 貴族政治로서 한 사람의 貴族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孔子는 大夫요, 少正卯도 또한 大夫일진대 어찌 大夫로서 大夫를 죽일 수 있었을까? 가장 야릇한 것은 그 時代의 前後 세 가지의 일이 꼭 같이 記述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最初의 것은 齊太公이 華士를 죽인 것이고, 그 다음 것은 鄭子產이 鄧析을 죽인 것이고, 最後의 것이 비로소 魯의 孔子가 少正卯를 죽인 것인데 모두 執政後 사흘만에 사람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題目, 같은 罪名, 같은 手段으로 되어 있다. 數百年 間에 같은 事實이 前後 세 번이나 조금도 變更됨이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世上에 決코 없는 일이다. 이것은 確實이 戰國時代末葉에 法家가 孔子에게 依託하여 事實을 捏造한 것이다. 後代에 와서 孔子를 尊敬하는 사람은 孔子가 手段이 있다고 여겼으며, 孔子를 攻擊하는 사람들은 孔子가 너무 專制했다고 여겼다. 實은 真相이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를 盲信한다면 어찌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孔子家語가 僞書임은 漸時 접어 두기로 한다. 論語는 가장 믿을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崔東壁의 考證에 依據하면 참된 것은 十中八九이며 最後의 몇 篇은 역시 僞作이 있다. 第17 陽貨에는

『公山弗擾(季桓子の家官)가 費(魯의 邑)에서 叛亂을 일으키고 孔子를 招請커늘, 孔子 가시려 하매, 子路(譯註: 仲은 姓, 由는 名, 字는 子路)기뻐하지 않으며 여쭙기를 「가실 곳이 없다면 그만 두실 것이지, 어찌 公山氏에게 가시려 하옵니까?」 孔子 答하시되, 「그가 나를 招請할 때에는 어찌 부질없는 일로써 이겠느냐? 만약 나를 쓴다면, 나는 魯를 일으켜 東方의 周로 삼을 생각이지.」

라는 말이 있고, 또

『佛肸(譯註: 蘧, 中牟의 懸官)이 孔子를 招請커늘, 孔子 가시려 하매, 子路 여쭙기를, 「전날에 제(由)

釋註 1) 原著에는 「言僞而辯, 行辟而堅, 潤澤而非, 記憶而博」이라 하였으나 이는 分明히 句字, 宥坐篇의 「心遠而險, 行辟而堅, 言僞而辯, 記醜而博, 順非而澤」을 引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順位도 틀리려니와 「潤澤而非」의 句는 없다. 代身 「心遠而險」이 첫머리에 있고 끝 句가 「順非而澤」으로 된 것으로 보아 或 五大惡의 一部分이 아닌가 하여 이를 附記해 둔다. (荀子 卷 第20. 宥坐篇, 第28. 唐, 楊倞註<六子全書, v. 13. 世德堂, 刊年未詳>p. 2. a)

가 선생(孔子)님께 듣자온즉, 옳지 않은 일에 그 몸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君子는 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佛胥이 中牟에서 叛亂을 일으켰거늘 선생님께 서는 가시려 하니 쉰 일이옵니까?」孔子 答하시되, 「그렇지, 내 일찌기 이런 말을 했었지. 그러나 참으로 단단한 것이 없겠나? 갈아도 얇지 않지. 또 참으로 흰 것이 없겠나?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지.〔그렇다면 내 어찌 匏瓜(쓸모없는 것의 비유)가 되겠느냐? 한 곳에 매달려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게 하겠나?〕」²⁾

라고 하였다. 公山弗擾와 佛胥 두 사람은 앞서거나 뒤서서 謀叛하면서 모두 孔子에게 協助를 要請하자 孔子는 기꺼이 이를 받아 들이려 하였으나 마침내 門人의 諫言으로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孔子를 恭敬하는 사람들은 孔子가 權道와 變法에도 通達하였으며 愛國하고 憂民한 것으로 여겼고 孔子를 罵倒하는 사람들은 孔子가 벼슬에 눈이 멀어 벼슬길에 나가는 데 있어 慎重치 못했다고 여겼다. 實은 公山弗擾는 季氏手下的 家臣이었고, 費 또한 季氏의 食邑이었으며 孔子는 당시 魯의 司寇였다. 公山弗擾는 말하자면 一個 郡守였고 孔子는 大法院長格이었으니 어찌 一個 郡守가 謀叛하고 있는데 大法院長이 뛰여 가서 協助할 理가 있겠는가? 이것은 아무래도 語不成語이다. 公山弗擾이 費에서 謀反한 史蹟은 左傳에 詳述되어 있으니 辯解 안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佛胥이 中牟에서 亂을 일으켰을 때에 대해서 말하면 孔子가 이미 세상을 떠난지 10餘年³⁾이 되니 佛胥이 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決코 저승에 간 사람에게 協助를 請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孔子가 실사 벼슬을 하고 싶더라도 무덤 속에서 뛰쳐 나와서 옳지 않은 일에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일은 說苑에서 明白히 考證되어 있으니 또한 辯解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말은 論語에 있기 때문에 모두를 敢히 懷疑하지 못한 것이다. 一般의 腐儒들은 故意로 事實을 歪曲하여 辯護하고 있으니 더욱 우스운 일이다. 事實의 真相이 紊亂되면 歷史를 研究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골치가 아프고 눈이 어지럽게 되어 실마리를 찾아 푸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그래도 작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孔子를 尊重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 그의 行爲를 본받거나 혹은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孔子의 前例를 護身符로 삼는다면 世道人心에 至大한 關係가 있게 된다.

이렇게 捏造된 事實은 비단 道德에 影響을 미칠뿐

아니라 또한 政治에도 크게 影響이 미치고 있다. 例컨대, 周禮의 職官은 그 名目이 번거로와 幾千里의 國土 안에 平均해서 十里도 못 되는 곳에 하나의 官吏가 있으니 마치 學校에 學生이 열도 못 되는 곳에 敎員 하나를 두고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우스운 일이 아니라. 後代에 冗官(쓸데없는 官員)이 많게 된 것은 모두 이에 緣由된다. 또한 太監制度 같은 것은 歷史에 있어 좋지 않은 事例가 許多했으나 周禮에도 太監이 있기 때문에 後世人들이 이를 憑藉하여 나쁘다는 것을 明白히 알았지만 如前히 各 朝代마다 이것을 實施하고 있었다. 漢代의 王莽이나 宋代의 王安石은 모두 周禮를 믿었으므로 政治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좋게 말하면 過信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利用한 것이다. 애초에 이러한 制度는 없었는데 스스로 속고 또 남을 속였으니 結果的으로는 個人이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全國의 政治 또한 收拾할 수 없게 만들었다.

2. 思想

書籍은 古代의 先哲들이 남긴 遺産이다. 우리들은 書籍에 依함으로써 思想의 發展 및 進歩를 研究할 수 있다. 萬一 僞書가 이 속에 뒤섞여 있다면 첫째는 時代의 思潮가 紊亂해지고, 둘째는 學術의 源流가 混淆되고, 셋째는 個人의 主張이 矛盾되고, 넷째는 學者들의 精神을 虛費케 한다.

첫째, 時代의 思潮를 紊亂시킴 : 管仲은 春秋時代 初期의 人物이고 管子는 戰國時代의 作品이다. 管子 안에는 兼愛·非攻·息兵을 批評하는 말이 있다. 이들은 分明히 戰國時代 初期에 墨家가 興起한 以後야야 비로소 問題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萬若 管子를 管仲의 作品이라고 한다면 바로 春秋時代 初期에 兼愛·非攻 따위의 問題를 말한 것이 되니 時代가 어찌 紊亂되지 않랴. 또한 老子는 一般的으로 老聃(人名)의 作品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老聃은 孔子의 先輩니 그 思想·學說은 尙당 孔子의 말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老子 안에는 「仁和仁義」를 批評한 곳이 적 많다. 仁은 孔子의 口號요, 仁·義를 아울러 말하는 것은 孟子的 口號이다. 그 以前에는 이 말을 입에 올린 사람이 없었다. 老子에는 『德이 잃어진 然後에 仁이 생기고 仁이 잃어진 然後에 義가 생겼다』라고 하였고, 또 『大道가 廢하자 仁義가 있었다』고도 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孔子와 孟子 때문에 나타난 것이니 思想體系로 볼 때에는 마땅히 孔孟의 뒤가 될 것이다.

釋註 2) 論語에는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의 句가 添해 있다. 이 句까지 引用되어야 讀者의 理解가 쉬울것 같애 譯文에 이를 添言해 본다. (十三經注疏10, 論語注疏 卷17, 陽貨 第17, (臺北, 商務印書館, 1960) p. 155)

3) 本論의 「十餘年」은 「六十至八十」으로 치는 學者(林尹, 辨眞僞法講義)도 있어 이에 대하여는 釋然치 않아 앞으로의 論究를 要한다.

해결은 哲學의 發達을 論하여 正·反·合으로 되어 思想은 進步된다고 했다. 먼저 墨子가 非攻·兼愛를 내세우듯이 한편에서 正面으로 主張을 내세우고, 그 뒤에 管子가 非攻·兼愛를 신랄하게 批評하듯이 다른 한편에서는 反面으로 攻擊하고, 다시 儒家에서 仁和 仁義를 내세우듯이 몇 개의 問題를 내세우고 그 뒤에 다른 한편(老子)에서는 仁和 仁義의 價値를 根本으로부터 贊成치 않고, 그런 뒤에 後代의 사람은 이것을 折衝·調和하게 되어 學術은 自然히 一步一步 發達하는 것이다. 墨家의 主張이 없으면 管子의 意見은 발붙지 못하게 되고 儒家의 見解가 없으면 老子의 批評도 對象을 잃게 된다. 萬一 管子를 墨家의 앞에 놓고 老子를 儒家의 앞에 놓는다면 思想進歩의 常軌에 逆行함이 된다.

둘째, 學術의 源流를 混淆시킴 : 앞에서 管子와 老子는 비록 전적으로 僞作은 아니지만 時代가 좀 顛倒되었으므로 탈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떤 책이 完全히 僞作이라면 그것은 더 탈로서 學術의 源流를 弄망 그르친다. 예컨대 列子는 곧 東晉 때의 張湛(列子에 註를 단者)이 道家의 말을 끌어 모아 이룬 것이다. 참된 列子는 여덟 篇이 있으며 漢書藝文志에 그 目次가 보인다. 그 뒤에 이 책이 없어지자 張湛은 여덟 篇의 目次에 依해서 僞書를 만들고 劉向의 序文을 아울러 실었으므로 一般은 劉向이 이미 이를 보았던 것이니 결대로 틀림없을 것으로 여겼다. 理致로 따져보면 列禦寇(列子の 原著者)는 莊周의 先輩이니 그의 學은 마땅히 後代의 色彩를 띠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列子 안에는 東晉·西晉 시대의 佛敎思想을 많이 言及하고 있으며 또 許多한 佛家의 神話를 混載하였으니 後人의 僞作임에 疑心할 바 없다. 그러나 後人들은 그 內幕을 알지 못하고 佛敎思想이란 대단할 것 없다 한다. 中國에서는 二千餘年 전에 벌써 言及한 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誇大妄想은 人類의 共通的인 弱點으로 우리 自身도 또한 例外가 아니다. 허풍을 칠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기본중계 마음껏 허풍을 친 것이다. 張湛은 晉 나라 때에 태어나 佛敎의 經典을 널리 읽었으므로 佛敎思想을 融和하고 또 神話까지도 아울러 使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 된 것을 모르면서 참으로 列禦寇의 作品으로 誤認하게 되고, 또한 그에 依據하여 莊周와 列禦寇의 異同을 얘기하면서 列子는 莊子에 比較하여 더욱 精深하다는 말을 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列子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니 時代가 比較的 이르고 文章도 또한 優美한 점이 있는 것으로 다른 僞書에 比較하면 確 훌륭한 것이다. 이 밖에 關尹子가 있는데 時代는 더욱 늦으며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佛敎思想이고 그 名詞 또한 전적으로 佛經에서 取해 온 것이다. 예컨대 「受·想·行·識」이나 「眼·耳·鼻·舌·身·意」 따위는 모두 中國의 固有한 言語는 아니다. 文章은 四字가 一句씩 된 것으로 楞嚴經과 같다. 史記에 의하면 關尹子는 이름을 흘라고 하며, 函谷關을 지키는 사람으로 老子의 後輩인데 老子가 函谷關을 나가자 그는 老子에게 著書를 지어 줄 것을 請하였다 한다. 莊子의 天下篇에도 老聃과 關尹을 並列하고 있으며 그들을 古代의 「博大多人」이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關尹이란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關尹子란 책으로 말하면 確 後代에 出刊된 것이다. 또 그 文章을 보아도 순전히 唐人이 翻譯한 佛經의 筆致와 恰似하니 적어도 唐代以後의 것일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어떠한 來歷으로 이렇게 된 것일까? 大體로 六朝·隋·唐以後 道敎와 佛敎는 서로 競爭하고 있었으므로 故意로 僞書를 많이 만들어 자기의 宣傳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老子를 내세워 教主로 삼고 「太上老君」이란 尊稱을 올렸고, 또 老聃은 老子以外에 또한 許多한 책을 지어 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있는 老子化胡經이란 책은 특히 황당무계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道藏⁴⁾에 들어 있다. 史記에 老子가 函谷關을 西쪽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後人은 여기에 附會하여 그가 印度까지 傳敎하러 가서 가르쳐 낸 弟子가 곧 釋迦牟尼이며, 佛敎가 發生한 것은 中國人의 덕을 많이 본 것이라고 말 하는 것이다. 老子와 釋迦는 本來 아무런 關係도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輾轉하여 附會하면 어찌 思想體系를 混淆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셋째, 個人主張이 矛盾됨 : 單純히 한 學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僞書가 있기 때문에 그의 思想을 前後 錯亂·矛盾케 만든다. 易經의 繫詞⁵⁾를 例로 들어 보자. 이 책이 누구의 著作인지 우리들은 敢히 確言할 수 없다. 前人들은 孔子의 著라 하나 나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다. 그 內容은 論語와 矛盾되는 것이 許多하니 어느 것이 참된 孔子의 말씀인지 알기가 어렵다. 論語의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鬼神을 섬길 수 있을까』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을까』

釋註 4) 道敎에 관한 一切의 經典으로 5,500冊이며, 明, 正統·萬曆의 二刻이 있다.

5) 易繫詞上에는 「易은 思慮가 없고, 作爲가 없다. 그러므로 寂然히 不動하면 萬事를 感想하고 (모두 感想에 따라) 마침내 天下의 事故(即萬事)에 通達한다. (易의 理致는 神功不測하니) 天下萬事 가운데 至極히 神妙한 것이 아니면 그 어느 것이 이룰 수 있을까?」(易無思也無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라는 記錄이 보이고 있다.(上揭書 1. 周易正義 卷 7. 繫辭 上 p. 154)

까』란 말을 보면 孔子는 現實主義者요, 宗教色彩를 띠지 않았다. 그런데 繫詞의 『精氣가 모여서 萬物을 이루고, 遊魄이 떠나서 改變이 생기므로 鬼神의 情狀을 알 수 있다』란 말로 보면 孔子는 또한 宗教家이다. 도대체 어느 것이 참으로 孔子가 한 말일까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萬一 이 두 책이 모두 참된 것이라면 孔子는 스스로 矛盾 撞着된다.

繫詞에는 또한 『寂然히 不動하면 感應이 있어 마칠 내(天下萬事에) 通達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哲學의 意義로 본다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確實히 道家의 影響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發生된 것이다. 論語 안에는 이런 말이 없는 것이다. 두 책을 모두 믿는다면 自家矛盾이 된다. 만약 한 가지만을 믿는다면 또한 누가 옳고 그르고를 알 수 없다. 나의 견해로 말하면 論語는 言辭가 素樸하고 來歷도 分明하니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繫詞는 言辭가 玄妙하고 來歷도 비교적 흐릿하니 최대로 양보하여 儒家의 後學이 進步 또는 分化하여 나온 것으로 儒家에 이러한 思想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牽強했지만 만약 모두가 孔子의 著作이라고 認定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墨子를 예로 들어 보자. 墨子의 大部分은 참된 것이지만 卷首의 七篇은 그 뜻이 알송달송한 것이 疑心스럽다. 墨子는 根本적으로 儒家를 反對하여 곳곳에서 儒家와 對立하고 있다. 그러나 墨經의 前七篇에 있는 許多한 儒家의 말은 當然히 墨家의 真相이 아니므로 많은 學者들은 이 冊을 懷疑하고 있다. 墨子問詁의 作者 孫詒讓(淸·字는 仲容)의 意見은 當時 儒家의 勢道가 커서, 墨家는 甚한 壓迫을 받았으므로 이 책을 保護하기 위하여 故意로 앞 部分의 몇 章에 儒家에 迎合하는 말을 插入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關門을 通過할 때 脫稅하기 위하여 故意로 密輸하는 물건 위에 많은 稅를 덮는 것과 같은 用意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墨子를 研究하는 사람들을 迷惑시키고 있다. 즉 처음엔 이런 語套였다가 뒤에 가서는 또 다른 態度로 바뀌어 墨字는 머리와 꼬리가 다른 格이 되어서 도리어 그의 真相을 잃게 하는 것이다.

넷째, 學者의 精力을 浪費시킴 : 佛典으로 가장 널리 퍼지고 이름난 것은 楞嚴經이다. 이 책은 宋·元·明·淸을 거쳐 現在에 이르기까지 佛學中에서 아직도 그 影響力이 크게 미치고 있다. 그 가운데 佛力의 敎理를 開拓한 곳도 적지 않지만 佛敎의 敎理와 矛盾·相衝되는 곳도 許多하다. 神仙說 같은 것은 道家의 主張이다. 즉 佛敎는 本來 無神論을 主張하는데 楞嚴經 중에는 神仙에 대한 말이 적지 않다. 그래서 道敎와 佛敎의 限界가 分明치 않게 만들어졌다.

楞嚴經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後人의 僞作이라고 根

本的으로 否認한 者가 없다. 나는 이에 대한 辨僞考 翰을 지으려고 資料도 꽤 많이 蒐集하였지만 哀惜하게도 아직까지 執筆치 못하고 있다. 佛敎를 眞摯하게 研究하려면 마땅히 書籍의 僞作을 가려내는 方法을 써서 이 책(楞嚴經)의 眞僞를 考究하지 않으면 안 된다. 萬一 僞作이라면, 그것을 燒却해 버려야 하는 것이다. 全書의 文章은 至極히 아름다운 四字가 一句씩 된 것이지만 哀惜하게도 思想이 混沌되고 淺薄, 卑劣한 道家의 말과 支離滅裂한 宋代儒學者들의 學說을 뒤섞었으니 엉망이다. 만약 眞僞를 正確히 識別 못하고 佛敎의 寶典으로 삼고, 이를 仔細히 研究하여 혹시 儒·佛·仙 三種의 思想을 하나의 溶鑛爐에 녹인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佛家의 真相이란 結論을 내린다면 어찌 精力을 徒勞시키는 것이 아니라!

3. 文 學

무릇 하나의 書籍을 읽는 데는 그 內容을 研究하는 以外에 또한 文章을 讀誦해야 하는데 文學에 關한 書籍에 이르러서는 鑑賞을 해야 함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만약 書籍의 眞僞與否나 傳해진 時代를 明白히 가리지 못하면 既述한 바와 같이 時代思潮를 紊亂시키고 進化源流를 混淆시키고 個人的 價値를 矛盾시키고 學者의 精力을 徒勞시키는 따위의 缺點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時代思潮를 紊亂시키고 進化源流를 混沌시킴 : 前에 불러지던 中國의 國歌, 즉 『祥瑞로운 구름이 찬란하도다. 길게 길게 펼쳐 있도다. 해와 달이 빛나는도다.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卿雲爛兮糾縵縵兮. 日月光華, 且復且兮. 日月光華, 且復且兮. 二政敎의 훌륭함을 그린 것)는 堯 或은 舜 때에 지어진 것이라고 傳해진다. 그 좋고 나쁘고는 別問題로 치자. 그러나 堯舜時代에 이미 이러한 作品이 있었다면 詩經 三百篇은 春秋時代의 詩歌일 텐데 그저 그러그러하니 夏·商·周代의 사람은 모두 棍杖을 맞아야 할 것이다. 幾百年 乃至 千年間에 조금도 進步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進化의 法則에 맞추어 보면 卿雲歌는 堯舜(譯註: 唐은 堯의 陶唐氏, 虞는 舜의 有虞氏로서 堯舜을 唐虞라함)時代의 作品일 수 없다.

또한 『偽古文尚書』에 있는 五子之歌를 보자. 太康은 아우 다섯이 있었는데 太康이 德을 잃자 그 다섯 아우들은 大禹의 戒를 생각하고 느낀 바가 있어 이를 지었다는 것이다. 卷首에서

『大禹께서는 訓戒가 있었으니,
百姓은 親近히 해야 할 것이라고, 卑賤게 해서
안 될 것이라고.

百姓은 나라의 根本이며, 根本이 鞏固해야 나라는 安寧한 것이라고.

(皇祖有訓, 民可近, 不可下. 民惟邦本, 本固邦寧……)

하였고 以下 全篇의 文體도 大略 모두 이와 같다. 이 노래는 文字가 順調로와 어린이들이 읽는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니, 當時의 文章이 아주 분명함을 알게 한다. 그러나 周誥(譯註: 書經 周書의 大誥·康誥·酒誥·召誥·語誥), 殷盤(譯註: 書經 商書의 盤庚)은 무척 文章이 읽기 어렵다. 夏朝는 더 오래 된 王朝인데도 文章이 읽기 쉽고, 殷·周는 後代의 王朝인데도 읽기 어려운가? 周誥·殷盤이 알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殷墟에서 發見된 文字 또한 解釋하기 어렵다. 萬一「五子之歌」가 眞本이라면 中國文學의 發展相은 참으로 奇怪하기 그지 없다.

「古詩 十九首」에

가고 가고 또 가고 가고,
그대와 생이별이라.
서로 멀어지기 萬里가 넘고
각각 하늘 끝에 가있네.

길은 험하고도 머니
만날 일을 어찌 알 수 있으랴?
蒙古의 말은 북풍에 기대고
越 나라 세는 남쪽 가지에 등우리 치노라.

서로 멀어지기 날로 멀어지니
허리되는 날로 느슨해지노라.
뜬 구름이 흰 태양을 가렸으니
나그네는 돌오지 않노라.

임 생각노라 사람은 늙었고
한해는 또 빨리도 저무노라.
그만 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자,
밥이나 많이 들도록 하자.
(行行重行行, 與君生別離. 相各萬餘里, 各在天一涯. 道路阻且長, 會面安可知. 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 相去日已遠, 衣帶日已緩. 浮雲蔽白日, 遊子不顧返. 思君令人老, 歲月忽已晚. 棄捐勿復道, 努力加餐飯.)
(한 首단 쓰고 나머지는 省略)

이 詩는 아름답고 優雅한 것으로 글자 하나 하나가 千金의 값이 있는 것이다. 玉臺新詠의 말에 依據한다면

「古詩 十九首」 가운데 8首는 枚乘의 作이라 한다. 枚乘은 前漢의 景帝·武帝 때의 사람인데 이미 이와같은 좋은 詩를 지었다면, 그가 죽은 뒤 百餘年間 아무도 이런 詩를 짓지 못하다가 後漢에 와서야 비로소 몇 篇의 五言詩가 나오게 됐을까? 그 가운데 한 篇은 大文豪 班固가 지은 것이지만 音韻이 고르지 못하고 內容도 亦是 平凡한 것이다. 後漢 末期에 와서야 한 사람의 蔡文姬가 나왔고 三國時代에 한 사람의 曹植(字, 子建)이 나왔다. 그런데 그들의 詩는 오히려 「古詩十九首」와 差가 없는 것이다. 「古詩十九首」 가운데 몇 篇이 참으로 枚乘의 所作이라면 前漢에서 三國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向上된 點이 없으니 實로 解釋할 餘地가 없다. 年代를 確實히 考證하기 前에는 文學史를 쓸 수 없다.

「詞」의 始祖는 李白으로 傳해지고 있다. 李白이 지었다는 두 首의 詞가 있는데 이것이 詞의 起源이라는 것이다. 첫째 것은 「菩薩蠻」이다.

평탄한 숲은 끝없는데 연기가 서리어 들고,
차가운 산은 원통 感傷에 젖은 푸른 빛.
저녁 기운이 높은 다락에 드는데,
한 사람이 다락 위에서 愁心하노라.

玉으로 다듬은 층계는 덩그러니 서 있고,
잘새는 급히 날아 돌아 가노라.
어디가 갈 곳이나?
끝없이 머나 먼 길.

(平林漠漠煙如織, 寒山一帶傷心碧. 隕色入高樓, 有人樓上愁. 玉階空佇立, 宿鳥歸飛急. 何處是歸程, 長亭連短亭.)

또 한 首는 「憶秦娥」이다.

통소 소리 흐느낀다.
秦娥의 꿈은 秦樓의 달에 부서진다.
秦樓의 달이어!
年年이 버들 빛은 푸르구나
灞陵橋의 슬픈 이별에!

樂遊原 위에 맑은 가을이 왔다.
咸陽 가는 옛길에 소식이 끊어졌다.
소식이 끊어짐이어!
西風에 落照가 지는구나
漢 나라의 陵墓와 宮闕에!

(簫聲咽, 秦娥夢斷秦樓月. 秦樓月, 年年柳色, 灞陵傷別. 樂遊原上清秋節, 咸陽古道音塵絕. 音塵絕, 西風殘照, 漢家陵闕.)

이 두首는 詩像이 高尚하여 모두들 李白이 아니면 이런 作品을 쓸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李太白의 詞는 最初 두首가 있을뿐이었으나 後에 尊前集에 와서는 十餘首로 增加시켰으며 다른 選本에는 또한 몇十首가 되기도 한다. 唐나라 때의 詞가 이미 이처럼 훌륭한데 어찌하여 五代의 花間集은 그저 그러그러할뿐인가? 다시 말하면 花間集에는 雙調의 詞가 적고, 실사 있다 하더라도 字句가 같지 않다. 그러나 李白의 詞는 모두 雙調이고 또 字句도 똑 같으니 이 점이 또한 疑心스럽다. 盛唐에 詞가 있었는데 中唐의 百餘年間 아무도 詞를 짓지 않다가 晚唐에 와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溫庭筠이 있게 됐다. 이것은 進化의 原理로 보아 이럴 수 없는 것이다. 李太白의 詞가 진짜라면 文學史는 펴 執筆하기 어렵다. 만약 여러 方面으로 考證하여 이것이 僞作이란 것을 알아 내면 文學史의 局面이 大幅 틀리게 된다.

둘째, 個人의 價値를 矛盾시키고 學者의 精力을 徒勞시킴 : 다시 個人에 대하여 말하면 有名한 사람들의 作品에는 僞作이 적 많으며 名聲이 높아질수록 僞作도 더욱 甚하게 된다. 즉 李太白集을 嚴格히 考證해 보면 그 가운데 4分之1은 假作이다. 「笑矣乎」(우습고나야)라 題目을 부친 詩 한首가 있는데 內容이 惡劣하고 文格이 또한 卑下한 것으로 太白의 作이 아님이 顯著하다. 이 밖에 이와 같은 것이 더욱 많이 있다. 李太白을 研究하려는 者는 眞僞를 가려내지 아니 하면 안 된다. 만일 眞僞를 가려내지 않으면 참으로 「笑矣乎」(우습고나야)가 될 것이다. 왜 僞作이 많은가 하면 名聲이 떨친 곳에는 剽竊하기 가장 쉬우며 또 抄書하는 者들의 속에서 轉轉하는 동안 보태어져서 僞作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唐末에 李赤이란 사람이 있어 곳곳마다 李白을 模倣하며 스스로 李白의 兄이라고 하고 또 그의 詩文은 李白의 詩文보다 낫다고 했다. 唐文粹에는 또 그의 傳記가 있다. 즉, 그는 날마다 술을 마시며 詩를 읊다가 뒤에는 發狂하여 便所 속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하나는 「白化」하고 하나는 「赤化」했으며, 하나는 물에 빠져 죽고 하나는 便所 속에 빠져 죽었으니 모두가 짝이

잘 맞는 것으로 도리어 꽤 興味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의 究竟의 眞否는 알 수 없지만 그는 李白의 詩文을 배우고자 했고 또 많은 「笑矣乎」(우습고나야)와 같은 詩를 지었다는 것은 아마도 事實이었을는지 모른다. 만약 分明히 考證하지 못하면 李白 본인은 스스로 矛盾에 撞着케 된다. 詞는 그렇게 잘 지었는데 詩는 어찌 그렇게 엉당인가? 만약 「笑矣乎」(우습고나야)一篇으로써 그의 詩作을 探點하면 落第가 틀림없고 또한 棍杖 감이다.

東坡集 속에도 假作이 있다. 清代 紀昀의 考證에 의하면 僞作이 數十首 있다. 그 僞作의 原因도 太白集 속에 있는 假詩와 한가지다. 이름을 탐내어 混入한 것이다. 詩를 僞作해 내어 作家를 모욕하는 것은 참으로 밍살머리스럽다. 만약 作品으로부터 作家의 人格을 研究한다면 李白과 李赤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런데 李赤의 詩로써 李太白의 人格을 斷定한다든가 後人의 假詩로써 東坡의 人格을 斷定하는 것은, 첫째 일을 그르치고, 둘째 精力을 徒勞케 한다. 다시금 예를 들자면 아직도 할말이 많지만 이미 大意는 說明했으니 言辭를 낭비할 必要가 없다. 要컨대 中國의 書籍 가운데 全部 僞作인 것이 적 많고 一部分은 僞作이고 一部分은 참된 것이 있는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年代가 틀린 것도 있다. 中國의 學問을 研究함에 있어서는, 特別히 歷史의 研究에 있어서는 于先 資料를 考證해야 하고 그 뒤에 다시금 時代를 識別해 내야 한다. 基準이 있어야 精力이 浪費되지 아니 한다. 「古書의 眞僞 및 그 年代」에 대해서 講義하는 目的이 이에 있다. 다행하게도 先學들이 이미 考證해 놓은 것이 이미 적 많고 또 그 方法을 따라 摸索할 수도 있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힘이 많이 덜릴 것이다. 學問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資料를 明確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講義에서는 前人들이 이미 考察을 마쳐 놓았거나 或은 前人들이 考證을 마친 것 못했으나 疑心을 품은 部分을 낱달이 수집하여 考證할 생각이다. 그런 뒤에 中國의 書籍을 研究해야만 비로소 틀림이 없게 되고 속아 넘어 가지 않을 것이다. (9月號에 繼稿)

☆

☆

☆